

20~30대 기혼여성의 원가족분화경험,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이지민(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subjects were 237 marrie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ho live in D city.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measures on the family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intimacy, and family strengths. Structural equational models were conducted with Amos 18.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Family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the perceived family strengths of marrie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2) Family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communication but no direct effect on marital intimacy. 3) Marital communication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intimacy but no direct effect on married women's perceived family strengths. 4) Marital intimacy had a direct effect on married women's perceived family strengths.

▲주제어(Key Words) :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원가족(family of origin),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 부부의사소통(marital communication),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I. 서론

최근 수십 년간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구조와 생활주기 패턴이 다양해지고 다문화 경향성이 두드러지며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가족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별 가족의 문제는 그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가족이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의 구조나 형태보다는 가족의 기능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Eo, 1997; Olson & Defrain, 2003).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을 강조함으로써 가

• 이 연구는 201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712-749, Korea, Tel: +82-53-810-2866, E-mail: ljimin@yu.ac.kr

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Otto, 1963; Pratt, 1976; Stinnett & Defrain, 1989).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을 전후하여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 Jung, 2011; Park, 2010).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 청소년, 대학생, 미혼 및 기혼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Bae & Kim, 2007; Gottman & Notarius, 2000; Kim & Choi, 2010), 최근에는 주말부부와 맞벌이 부부, 농촌부부, 다문화 가족으로 그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Choi, 2006; Kang & Choi, 2010; Kim, 2011).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err & Bowen, 1988). 또한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심리사회적 적응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개인들은 다양한 행동문제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Chung, 2009; Harrington et al., 1990).

한편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가족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가족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거나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건강성이 개인의 적응이나 부부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며,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신의 삶에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자신이 속한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자신의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기혼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장한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경험과 현재 핵가족에서의 부부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혼자의 원가족 경험과 관련되어 자주 연구되어지는 변인으로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있으며, 부부 상호작용변인으로는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있다.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가족원들 간의 연결성(connectedness)과 분리성(separateness)의 균형을 의미하며 (Anderson & Sabatelli, 1992),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결혼 전에 자신이 성장한 가족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연결성과 분리성을 어떠한 양상으로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다. 원가족에서 연결성과 분리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경험을

한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개별성과 자율성도 발달된다. 반면, 가족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은 가족 내의 연결성과 분리성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으로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보이거나 연결성이 없이 분리성만 보이는 극단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지니게 된다(Allison & Sabatelli, 1988; Nam, 2000). 연결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대인간 경계가 모호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이 방해받는 반면, 분리성만 강조하는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인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한다. 가족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가족 내에서 정서적 융합 혹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차원에서 개인의 성장에 방해받게 된다(Allison & Sabatelli, 1988; Skowron & Friedlander, 1998).

원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한 가족분화는 기혼자녀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원가족의 상호작용 경험이 세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Bowen, 1978; Cho & Chung, 200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원가족의 가족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경험한 기혼자들은 정서적 융합이나 단절을 경험한 기혼자들보다 자신의 현재 핵가족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지각하였으며, 더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Forrest, 1991; Yoo & Park, 1989)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핵가족의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Bartle-Haring & Sabatelli, 1998; Forrest, 1991; Kim, 2004; Nam & Han, 2003; Yu & Kim, 2011)과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과 같은 부부관계가 부부 개인이나 가족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적응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wang & Ko, 2010; Kim & Choi, 2007; Lee, 1998; Moss & Schwebel, 1993)들을 살펴볼 때,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기혼남녀가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 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만족과 안정성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Lee, 2010; Lewis & Spanier, 1979; Noller & Fitzpatrick, 1990).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가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부부간의 상호 지지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원만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Noller & Fitzpatrick, 1990; Park, 2006), 이는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기능이나 건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 간에 분명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부부는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반면(Kim & Choi, 2007; Park, 2006), 공감이나 경청, 배려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고 불분명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들은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Jacobson & Magolin, 1979).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부부 각자가 자라온 사회 문화적 배경, 경제적 배경, 가족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부는 각자 성장환경이 다른 원가족에서의 가족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의사소통 방식과 상호작용 패턴을 터득하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우자와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자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습관 혹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Kieclt-Glaser & Newton, 2001; Lee & Yun, 2007). Oh et al.(2013)은 가부장적인 원가족의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각자의 원가족에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부부의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원가족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경험과 의사소통 경험은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과 패턴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부부의 친밀감이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기능과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부친밀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부친밀감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특성에 대해 부부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밀접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Lee, 1995). 부부친밀감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부부 사이의 친밀감 결여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이혼의 주된 사유가 되기도 한다(Lee, 1998; Moss & Schwebel, 1993; Patton & Waring, 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유사하게 부부친밀감도 원가족에서

발달된 욕구와 기대, 가족 간의 관계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Kim & Yoo, 2001; Yu & Kim, 2011), 핵가족의 상호작용과 건강성,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친밀한 부부는 자기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가시키고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친밀한 부부관계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현대 핵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며 가족 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견해를 보인다(Moss & Schwebel, 1993; Waring, 1984).

반면, 대부분의 연구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부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Napier(1988)와 Bartle-Haring and Sabatelli(1998), Nam and Han(2002)은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부부의 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원가족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경험한 기혼남녀는 부부친밀감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부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Park(2006)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가족분화 수준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Yu and Kim(2011)의 연구에서도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는 현재의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기인식이나 타인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 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부부의사소통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원가족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이 핵가족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세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Bowen, 1978; Glenn & Kramer, 1987; Kerr & Bowen, 1988). Bowen(1978)에 의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정도의 분화 수준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며,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을 통해 원가족에서의 병리적인 생활방식이 현재 핵가족의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Burr, Day, and Bahr(1993)는 원가족에서 정서적 거리와 강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에는 병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전달된다고 하였으며, Anderson and Sabatelli(1992)는 가족분화의 개념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상호작용이 세대 간에 전수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핵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과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이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혼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나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친밀감은 기혼남성들의 지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m & Jennings, 1996; Park, 2006), 이러한 차이는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핵가족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혼여성은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안녕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의 기혼여성들이 맞벌이를 선택함에 따라 육아와 가사에 있어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가운데 기혼여성의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영향은 그들이 지각하는 핵가족의 건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가 있는 20~30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분화가 그들 핵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며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20~30대 기혼 여성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통해 20~30대의 기혼여성

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20~30대 기혼 여성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은 20~30대 기혼 여성의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원가족에서의 관계 경험이 현재 핵가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모색을 통해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적응에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건강성의 개념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그 개념과 특성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Otto(1963)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Otto(1963)는 강한 가족(strong family)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런 상호작용을 증진하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격려하는 특성을 지닌 가족이 건강하다고 정의하였다. Olson, Russell, and Sprenkle(1983)은 건강한 가족을 균형 잡힌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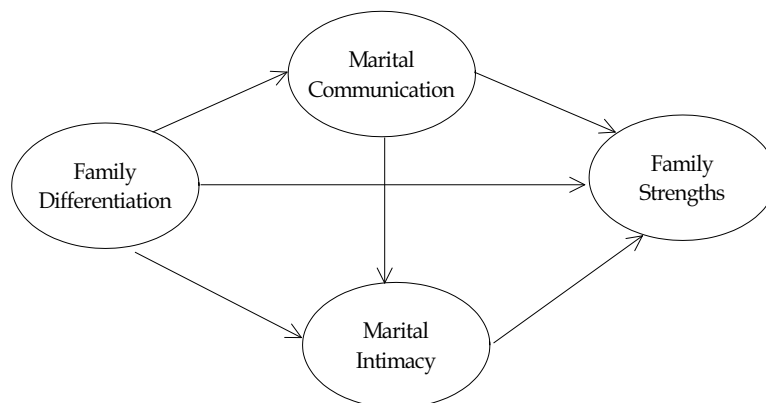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Model

족(balanced family)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Walsh(1996)는 회복력이 있는 가족(resilient family)으로, Beavers(1977)는 최적의 가족(optimal family) 등으로 지칭하면서 건강한 가족을 정의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Yoo(1994)가 개인적, 관계적, 체계적 차원에서 건강 가족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Yoo(1994)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관계적 차원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며, 체계적 차원에서 가족 체계의 틀을 잘 유지하여 사회, 국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Eo(1997)는 가족원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수용하며,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Yoo(2004)는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살펴볼 때,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족의 구조나 형태보다는 가족의 기능과 심리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Yoo(1994)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족건강성을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가족 고유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의 노력이나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족분화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Anderson과 Sabatelli(1992)가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가족 상호작용에 있어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을 의미한다. 연결성은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미있는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분리성은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미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이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Nam & Han, 2002).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는 개념으로 세대 간의 전수 과정을 통해 핵가족의 부부관계 및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수준과 현재 가족건강성 수준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원가족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경험한 기혼자들은 더 친밀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현재의 가족을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ison & Sabatelli, 1988; Forrest, 1991; Jin, 2008; Yoo & Park, 1989). Bowen(1978)은 적절하게 분화가 이루어진 가정에서 성장한 개인들은 배우자의 요구와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은 배우자의 불만족을 감소시키고 배우자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Lewis and Spanier(1979)는 원가족 부모의 결혼 질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으며 Sabatelli and Bartle-Haring(2003)도 원가족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이 기혼남녀의 결혼생활과 가족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의 선행연구들도 기혼남녀가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분화수준이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이나 부부친밀감 및 적응, 부부갈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Jin(2008)은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경험이 가족건강성과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기혼남녀 모두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Park(2006) 역시 원가족에서의 분화경험이 현재의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Nam and Han(2002)도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수준이 현재 가족관계의 질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으며, Lee and Lee(2011)도 원가족의 분화가 기혼자녀의 결혼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현재 핵가족의 가족관계와 기능, 그리고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부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가족건강성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건강한 가족은 분명하고 상호지지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족이다. 부부는 가족체계의 핵심으로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질은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im & Choi, 2007; Park, 2006), 더 나아가 전 가족의 행복이나 건강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부의사소통과 관련된 국외 논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고한다(Hahlweg et al., 1984; Lee, 2010; Noller & Fitzpatrick, 1990). Lewis and Spanier(1979)는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혼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부 간에 자기표현이 빈번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정확하며 감정이입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Hawkins et al.(2008)은 결혼과 관

계교육(marriage and relationship education; MRE)의 효과적인 요소로서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기술의 효과 크기(effect size)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반면, Gottman(1994)과 Jacobson and Magolin(1979) 등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부들은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이혼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국내 많은 연구들도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의 친밀감이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이나 부부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Lee and Lee(2000)는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을 바탕으로 군집을 분류하고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부 모두가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문제에 직면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Han, and Han(2011)은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성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서 표출을 많이 하는 경우 성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Hwang and Ko(2010)은 결혼 10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결혼가치관의 차이,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오해, 그리고 부부갈등에 있어 의사소통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부부의 의사소통은 상호적이며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상호성은 부부갈등을 증폭시키는 반면, 건설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결혼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사소통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때,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부의사소통은 부부의 친밀감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향상된 친밀감과 결혼만족도는 가족 전체의 건강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3) 부부친밀감

친밀감은 크게 행동이나 행위의 한 특성, 개인적 능력이나 성향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대인간 상호작용의 부산물로서의 특성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Moss & Schwebel, 1993; Lee, 1998). 부부친밀감은 이 세 가지 정의 중 대인간 상호작용의 부산물로서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며 Lee(1995)는 세 번째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적, 정서적, 성적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부친밀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친밀감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인 분석은 개인이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가 개인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하며 이러한 가정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Broucke, Vandereycken & Vertommen, 1995).

이와 유사하게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는 부부 각자의 심리적 복지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iener, 1984; Kim, 2001; Reis et al., 1985). 부부친밀감의 결여는 다양한 부부문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사회적·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장애 등을 야기하게 되며(Costello, 1982; Reis et al., 1985), 또한 중요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Moss & Schwebel, 1993; Waring, 1984).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부부의 친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와 부부의 친밀감이 결혼만족이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Waring and Chelune(1983)은 부부 사이의 자기노출이 부부 간 친밀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Broucke et al.(1995)은 부부친밀감을 개념화하고 사정하는 연구에서 부부 간의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노출, 정체감(identity), 원가족으로 부터의 분화라고 하였다. Kim(2001)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부부간의 가치관이 일치하고 상호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u and Kim(2011)과 Park(2010)은 각각 기혼여성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원가족에서의 분화경험은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Yu & Kim, 2011)을 통하거나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Park, 2010)를 통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im and Lee(2001)는 친밀한 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고 갈등정도가 낮으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Choe(2010)는 부부의 정서적·성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and Lee(2011)는 기혼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친밀감은 원가족의 분화수준과 함께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의 부부갈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3)은 50세에서 64세의 신노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여가, 상호존중, 경제갈등 등의 부부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직접 및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부친밀감은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가족에서의 분화경험이 현재 가족의 기능과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20~30대 기혼여성 237명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자료를 배부하여 280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11부와 연령이 맞지 않는 기혼여성 자료 25부를 제외하고 총 23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33.6세로 30대가 전체의 88.6%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35.8세로 30대가 전체의 77.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Anderson and Sabatelli

(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를 Nam(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혼여성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분화 정도를 11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에 관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에서 ‘매우 그랬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의 분화가 .86이었으며, 어머니와의 분화는 .83이었다.

2)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은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 Communication and Happiness, Olson et al., 1983) 목록 중 의사소통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9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8문항을 제외하고 21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긍정성(15문항)과 솔직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ies	N(%)	Variables	Categories	N(%)
Subject's age	20~29 years	27(11.4)	Spouse's age	20~29 years	11(4.7)
	30~39 years	210(88.6)		30~39 years	182(77.4)
Number of children	1	63(26.7)		over age 40	42(17.9)
	2	147(62.3)	Years of marriage	1year~5year	76(32.8)
	over 3	26(11.0)		6year~10year	134(57.8)
Subject'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position	49(21.2)		over 11year	22(9.5)
	office job	24(10.4)	Spouse'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position	43(18.4)
	sales and service, or, productional position	21(9.1)		office job	93(39.7)
	hose wife or etc.	137(59.3)		sales and service, or, productional position	42(17.9)
Birth order	first	86(36.4)		no job or etc.	56(23.9)
	second	53(22.5)	Family income (won)	under 2 million	45(19.1)
	after third	99(37.1)		2~3 million	82(34.9)
	only child	11(4.1)		3~4 million	55(23.4)
		over 4 million		53(22.6)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 처리를 하였으므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6문항)이 추출되었다. 부부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나는 배우자에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야기 한다', '배우자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을 역산하여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긍정성이 .92, 솔직성이 .76 이었다.

3)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Schaefer and Olson(1980)의 PAIR(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s)와 Hetherington and Soeken(1990)의 IRS(Intimate Relationships Scale), Stanley and Markman(1992)의 CI(Commitment Inventory), 그리고 Stevens and L'abate(1989)의 SOH(Sharing of Hurts)를 참고하여 Lee(1995, 1998)가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정서적(5문항), 인지적(5문항), 성적(5문항)의 3요인이 추출되었다.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을 역산하여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정서적 친밀감이 .77, 인지적 친밀감이 .80, 그리고 성적 친밀감이 .86이었다.

4) 가족건강성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은 Yoo and Eo(1995)의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제외하고 31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의사소통(8문항), 가족문제 해결 수행능력(5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8문항)의 4요인이 추출되었다. 가족건강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하다',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가족원간의 유대가 .9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90,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86,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89이었다.

3. 분석방법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AMOS 18.0의 최대우도추정법(ML)을 적용하여 통계적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신뢰도와 상관관계, 기술적 통계를 위해서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부합도는 부합도지수 χ^2 값, RMSEA, CFI, TLI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AMOS 18.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분석결과

1) 측정모델의 부합도 추정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ML)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4~.08을 비롯해 TLI=.97, SRMR=.03, CFI=.98로 나타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추정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방법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는 RMSEA=.04~.08<.10, TLI=.97>.90, SRMR = .03<.05, 그리고 CFI=.98>.90 로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델이 부합도 평가에서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Table 2. Correla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2	.69**	1.00									
3	.32**	.32**	1.00								
4	.19**	.20**	.59**	1.00							
5	.19**	.25**	.70**	.42**	1.00						
6	.31**	.27**	.67**	.43**	.76**	1.00					
7	.21**	.29**	.52**	.32**	.61**	.50**	1.00				
8	.32**	.34**	.66**	.45**	.72**	.70**	.55**	1.00			
9	.35**	.36**	.66**	.49**	.65**	.69**	.52**	.83**	1.00		
10	.32**	.38**	.57**	.46**	.66**	.65**	.44**	.82**	.80**	1.00	
11	.34**	.33**	.61**	.44**	.68**	.68**	.49**	.81**	.81**	.80**	1.00
M	3.37	3.52	3.80	3.54	3.65	3.43	3.30	3.80	3.64	3.78	3.52
SD	.65	.56	.70	.69	.67	.66	.71	.57	.60	.60	.59
SK	-.41	.05	-.36	-.28	-.73	-.44	.03	-.29	-.34	-.38	-.22
KU	.35	-.27	-.49	-.12	.63	.98	-.35	.26	.21	-.06	.50

** $p < .01$

1: Differentiation from father 2: Differentiation from mother 3: Positive communication 4: Honest communication 5: Emotional intimacy 6: Cognitive intimacy 7: Sexual intimacy 8: Family tie 9: Communication 10: Problem solve 11: Value share

Table 3.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Measurement	39	38	75.38	.97	.03	.98	.04	.08
Criteria			>.50	>.90	<.10	>.90	>.02	<.10

Table 4. Fit Indices for Structure Model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Structure	39	38	75.38	.97	.03	.98	.04	.08
Criteria			>.50	>.90	<.10	>.90	>.02	<.10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 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부의사소통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 경험에서 부부친밀감으로

가는 경로와 부부의사소통에서 가족건강성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해도 모델의 부합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경로를 삭제시킨 보다 간명한 모델을 설정하였다.

Table 5.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tructural Model

Variable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Family differentiation → Family strengths	.204	.173	.054	3.759***
Family differentiation → Marital communication	.540	.376	.102	5.297***
Family differentiation → Marital intimacy	-.013	-.013	.056	-.225
Marital communication → Family strengths	.021	.025	.075	.275
Marital communication → Marital intimacy	.581	.838	.067	8.725***
Marital intimacy → Family strengths	.923	.783	.127	7.275***

***p < .001

Table 6. Fit Indices for Revised Structure Model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Revised	37	40	75.71	.98	.03	.98	.04	.08
Structure	39	38	75.38	.97	.03	.98	.04	.08
Criteria			>.50	>.90	<.10	>.90	>.0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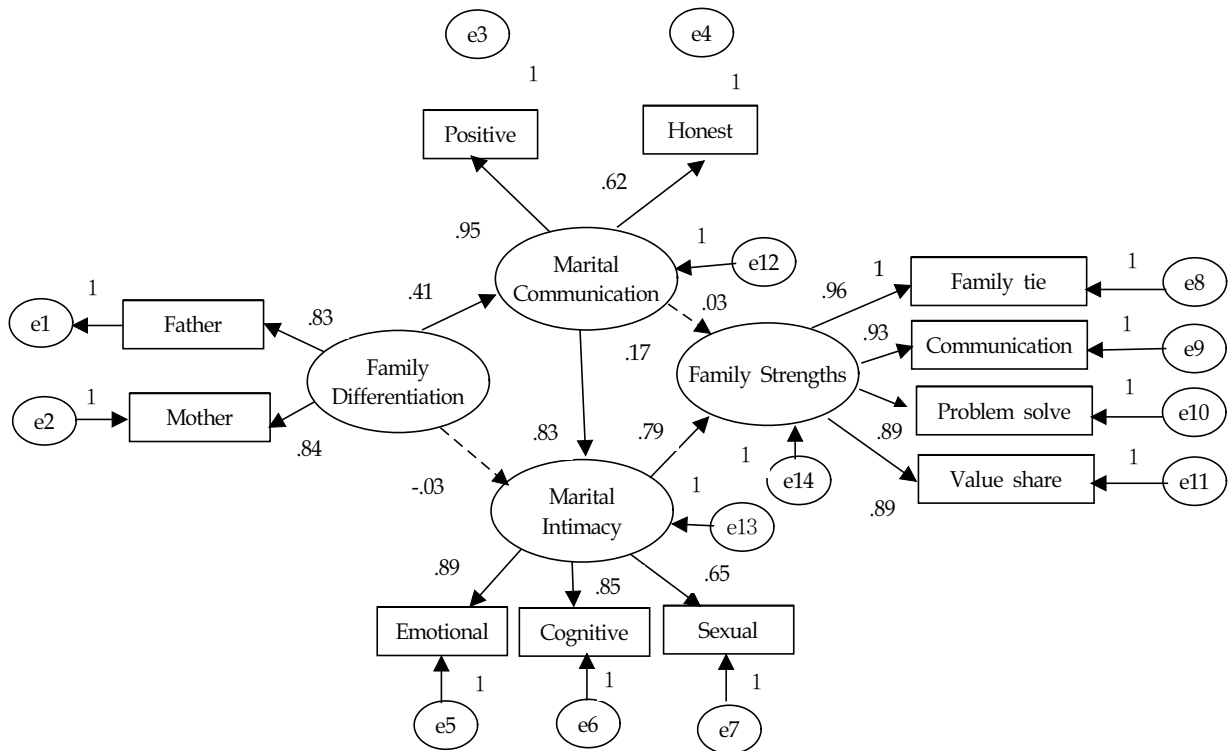


Figure 2.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of Revised Model

3) 수정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과 초기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초

기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지수와 비슷하였으나 절대부합지수인 χ^2 값(CMIN)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모델인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을 최종 연구모델로 선택하였다.

Table 7.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Married Women's Perceived Family Strengths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Family differentiation → Family strengths	.438*	.169*	.268*
Family differentiation → Marital communication	.408*	.408*	-
Family differentiation → Marital intimacy	.339*	-	.339*
Marital communication → Marital intimacy	.829*	.829*	-
Marital communication → Family strengths	.657*	-	.657*
Marital intimacy → Family strengths	.829*	.793*	-

* $p < .05$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반적인 모델 적합도 지수는 $RMSEA=.04\sim.08<.10$, $TLI=.98>.90$, $SRMR = .03<.05$, 그리고 $CFI=.98>.90$ 로서 모든 적합도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수치를 추정된 결과, 모델의 경로계수는 <Figure 2>와 같으며,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종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체효과, 직·간접의 모수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분화는 20~30대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과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 경험은 20~30대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부친밀감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의사소통은 20~30대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친밀감은 20~30대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3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20~30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경험한 20~30대

의 기혼여성은 자신의 핵가족을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에서의 가족 간의 상호작용 경험이 핵가족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Cho & Chung, 2008; Forrest, 1991; Kerr & Bowen, 1988; Yoo & Park, 1989)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원가족에서 정서적 융합이나 단절, 삼각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가족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가족투사과정을 통해 원가족에서 경험한 병리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핵가족에 전수하게 되며 이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원가족에서 적절한 균형의 연결성과 분리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다 더 친밀하고 애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분화된 자아를 형성하며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원가족 가족분화경험을 통해 가족 및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며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리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강한 상호작용방식도 세대를 거쳐 전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기혼여성이 결혼 후 형성한 핵가족의 상호작용 및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핵가족의 건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부부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가 기혼여성의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한 Park(2006)의 연구나 가부장적인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Oh et al.(2013)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부부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원가족에서 부모-자녀 간에 친밀

하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경험한 기혼여성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남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부 간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패턴이 부부친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Kim, Han, & Han, 2011; Litzinger & Gordon, 2007; Park, 2006; Robinson & Blanton, 1993). 부부 사이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부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비난, 방어, 경멸, 냉담(Gottman, 1994)을 사용하거나 상호 회피적 혹은 요구·회피적 의사소통 패턴(Christensen & Shenk, 1991)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지속될 경우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약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며 더 나아가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바람직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며 향상된 부부친밀감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의 원동력이 된다.

셋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부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의 결과(Bartle-Haring & Sabatelli, 1998; Nam & Han, 2002; Napier, 1988)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Lee and Lee(2011), Park(2006)의 연구와 가족분화가 개인의 특성이나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Yu and Kim(2011)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궁극적으로 기혼여성의 부부관계와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Yu and Kim(2011)의 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는 과거에 경험한 일이므로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태도 혹은 개인의 다른 특성 요인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특성들이 결혼 후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성교제 중에 있는 남녀 커플들을 대상으로 원가족의 건강성이 커플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 원가족 건강성이 남성의 친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친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Cha and Chun (2002)의 연구결과로 유추해 볼 때, 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 사료되어진다.

넷째, 부부의 의사소통은 20~30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친밀감은 20~30대 기혼여성의 핵가족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부친밀감이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하며 이러한 부부친밀감이 가족 전체의 기능과 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Diener, 1984; Hahlweg et al., 1984; Kim, 2001; Kim & Choi, 2007)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부부의사소통이 20~30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부가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자체만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지각하지는 않으며,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운데 부부친밀감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20~30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부의사소통은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며 부부 간의 향상된 친밀감은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의 원동력이 된다. 셋째,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은 원가족에서의 관계경험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중재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20~30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의 중요성과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혼자에게 있어 원가족의 경험은 핵가족의 상호작용과 건강성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 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원가족의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부부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부 대상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중재 혹은 매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혹은 환경

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REFERENCES

- Allison, M. & Sabatelli, R.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6.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e, K. & Kim, E. (2007). Original articles :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family function, ego-ident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3), 357-366.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A.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eavers, W. R. (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Brunner/Mazel, New York.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Inc.
- Broucke, S. V., Vandereycken, W., & Vertommen, H. (1995). Marital intimacy: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3), 217-233.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ha, J. & Chun, Y. (2002).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intimacy among the dating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1), 39-57.
- Cho, E. & Chung, H. (2009).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healt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05-132.
- Cho, S. & Chung, H. (2008).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he nuclear famil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73-889.
- Choe, Y. (2010).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health, marital intimacy, daughter-in-law and mother-in-law conflict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an*. Master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 Choi, J. (2006).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in double-income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6), 47-58.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ostello, C. G. (1982). 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 retrospective community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12, 329-34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Eo, E. (1997).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269-285.
- Forrest, M. (1991).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A, 53(8), 2688, 1993.
-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22-826.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Erlbaum.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0). Decade review :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27-947.
- Hahlweg, K., Revenstorf, D., & Schindler, L. (1984).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ory on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53-566.
- Harrington, R., Fudge, H., P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ren and adolescent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465-473.
- Hawkins, A. J., Blanchard, V. L., Baldwin, S. A., & Fawcett, E. B. (2008). Does marriage and relationship education work?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5),

- 723-734.
- Hawng, M. & Ko, J. (2010). Discrepancy,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in married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779-800.
- Jacobson, N. S. & Ma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nhancing principle*. New York: Brenner.
- Jin, D. (2008). *The effect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n the family strength and marital conflic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ang, S. & Choi, J. (2010).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of rural housewiv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2), 71-85.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ieclt-Glaser, J. K. & Newton, T. L. (2001). Marriage and health: His and hers. *Psychological Bulletin*, 127(4), 472-503.
- Kim, H. (2011).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Kim, H. & Jung, M. (2011). Study in development and satisfaction of the family volunteer activity program: Focused on 『Sharing Love and Joy with Growing Sprouts』 program and the participa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51-62.
- Kim, K. (2004). *The influences of family of origin and self differentiation on family function among married people*.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K. (2013). *The effect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of the young-old*.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Chungnam.
- Kim, K. & Choi, E. (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4), 641-653.
- Kim, K. & Lee, S. (2001). Marital conflict and related variables in old aged coupl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0, 31-54.
- Kim, M. (2001). *A study of the factors of influencing the marital intimacy*. Master thesis, Mokwon University.
- Kim, M. & Choi, Y. (2007). The effects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3), 1-23.
- Kim, S. & Yoo, Y. (2001).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s emotional health and ego-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6(1), 43-64.
- Kim, Y., Han, S., & Han, M. (2011). The relations between types of communication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sexu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7(2), 199-218.
- Lee, J. & Lee, Y. (2000). The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daily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Lee, Y. & Lee, Y. (2011).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f parents,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marital sta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1), 43-58.
- Lee, J. & Yun, H. (2007). The relationship of mindfulness,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a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3), 331-345.
- Lee, K. (1995).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235-249.
- Lee, K. (1998).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2010).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pattern and couple's character strength on marital satisfaction*.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269-273.
- Lim, M.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The Family Journal*, 4(4), 308-315.
- Litzinger, S. & Gordon, K. C. (2007).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31(5), 409-424.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Nam, S. (2000). *The study on the dynamics of emotional system of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Nam, S. & Han, S. (2002). The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intim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2), 33-49.
- Nam, S. & Han, S. (2003). The influence of family of origin on wedded couples's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marital intimac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05-523.
- Napier, A. (1988). *The fragile bond: In search on equal, intimate, and enduring marriage*. New York: Harper & Row.
- Noller, P. & Fitzpatrick, M. A. (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Oh, H., Choi, S., Cho, H., & Kwon, J. (2013). Effect of the origin family's patriarch atmosphere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newlywed couples: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communication pattern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1-16.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the family :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3rd ed.)*. Mountain View, CA : Mayfield.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tto, H. (1963). Criteria for assessing family strengths. *Family Process*, 2, 329-338.
- Park, M. (2006). *The effects of differentiation, family rules of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ommunication on couples' marital intimacy*.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cept and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37-55.
- Patton, D. & Waring, E. M. (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3), 201-206.
- Pratt, L. V. (1976). *Family structure and effective health behavior: The energized family*. Boston: Houghton Mifflin.
- Reis, H. T., Wheeler, L., Remis, M. H., Spiegel, N., & Nezelek, J. (1985). On specificity in the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456-471.
- Robinson, L. C. & Blanton, P. W. (1993). Marital strengths in enduring marriages. *Family Relations*, 42(1), 38-45.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59-169.
- Skowron, E. A. & Friedlander, M. I.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246.
- Stinnett, N. & DeFrain, J. (1989). The healthy family : Is it possible? In M. 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2nd Ed.)*. New York : Academic Press.
- Yoo, Y. (1994). The role of family members for healthy family.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e 16th Conference*, 25-42.
- Yoo, E. & Park, S. (1989). Th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and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to son's marital satisfaction : A path mode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 149-162.
- Yoo, Y. & Eo, E.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Yoo, G. (2004).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 - Focusing on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5-42.
- Yu, H. & Kim, Y. (2011). Effects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on women's self differentiation, coping behavior, and couple intimacy.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3), 141-158.
-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85-192.

Waring, E. M. & Chelune, G. J. (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183-190.

- 접수 일 : 2013년 06월 06일
- 심사 일 : 2013년 08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8일